

# 걸기를 통한 도시 공간의 심리지리학적 탐색과 시각화\*

김민성\*\*

## Psychogeographic Exploration of Urban Space Through Walking and Visualization\*

Minsung Kim\*\*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심리지리학의 의미, 공간 탐색 전략으로서 걷기, 심리지리학적 지도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걸기를 통한 도시 공간 탐색의 결과물로서 심리지도를 생성하는 것이다. 나아가 심리지리학적 공간 탐색의 지리교육적 함의 및 확장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심리지리학은 지리학과 심리학의 관점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1950-60년대 파리를 중심으로 부흥했다 최근 새롭게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분야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걷기는 육체와 경관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를 주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심리지리학적 도시 이해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심리지리학적 걸기를 통해 부산시 영도구를 탐색하고 '벌거벗은 영도'라는 심리지도를 생성하였다. 나아가 심리지리학 관점을 교육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으로 걸기를 통해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도시 탐색하기,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공간 경험하기, 심리지리 지도화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리교육에 심리지리학 논의를 소개하고, 구체적 적용 사례 및 교육적 함의를 살펴보는 시론적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심리지리학, 걷기, 심리지리학 맵핑, 벌거벗은 영도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psychogeography, walking as a spatial navigation strategy, and psychogeographic visualization and furthermore to create a psychogeographic map as an output of urban exploration. In addition, this research discusses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psychogeographic project and expansion strategies. Psychogeography as an attempt to combine geography and psychology thrived in the 1950-60s in Paris, and it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in diverse areas. Walking allows the interaction between body and landscape, thus it represent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s to understand the city psychogeographically. In this study, I explored Yeongdo in Busan and created a psychogeographic map, or 'The Naked Yeongdo'. As expanding pedagogical strategies of the psychogeographic perspective, the following are presented: Exploring cities actively and creatively through walking, experiencing space from diverse perspectives, and psychogeographic mapping activities. This study represents a preliminary attempt to introduce the notion of psychogeography to the Korean geography education society. Moreover, the article adds to the literature in that it offers specific applications of psychogeography and its pedagogical implications.

Key Words : Psychogeography, Walking, Psychogeographic mapping, The Naked Yeongdo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mskim@snu.ac.kr)

##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크게 진전된 현대사회에서 지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관심이 크다. 도시 이해는 지리적 안목을 함양하고, 지리적 관점에서 공간을 이해하는 역량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지리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적이고 창의적으로 도시 공간을 이해하는 심리지리학(psychogeography), 그리고 걷기를 통한 체화적 도시 탐색과 이를 통한 시각화에 주목한다. 심리지리학은 지리학과 심리학의 시각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1950-60년대 파리를 중심으로 부흥했다가 최근 새롭게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Richardson, 2015; Coverley, 2018). 심리지리학의 근간을 이루는 국제상황주의(Situationist International)는 펑크 록, WTO에 항의하는 무정부주의자, 게릴라 연극, 포스트모던 몽타주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Kitchens, 2009). Albright(2003)는 도시 드라마 분석에 상황주의를 적용하였으며, Kent(2013)는 사진작가 Walker Evans의 쿠바 사진들을 심리지리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기도 하였다. Ellard(2015)에게 심리지리학은 신경과학, 건축, 환경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다양한 공간 해석의 근간을 형성한다.

도시를 심리지리학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걷기를 통해 도시를 주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Daniilidis, 2016; Pyyry, 2019). 걷기를 통해 공간을 지각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육체와 경관은 상호작용한다. 걷기는 공간, 장소, 환경 속에 숨겨진 다양한 요소의 의미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한다(Sinclair, 1997; Pinder, 2011; 김미영·전상인, 2014). 니체, 랭보, 소로 등 수많은 거장들이 걷기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이해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걷기는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인 것이다(Gros, 2009, 이재형 역, 2014). 루소는 걸으며 몸을 움직일 때에만 생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Weiner(2020, 김하현 역, 2021)는 이런 루소를 “도시 유목민”으로 정의하고 철학적 사고가 정신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걷기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지리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으며(박철웅, 2014; Coverley, 2018), 특별한 목적 없이 공간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미지의 장소와 공간 요소를 발견하는 것은 공간 이해를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Bond, 2020,

홍경탁 역, 2020). 일상의 공간을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심리지리학적 표류는 비판적 시민성 교육 전략으로 주목받기도 한다(Ross, 2013). 이처럼 심리지리학의 의미,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공간 탐색 전략으로 걷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심리지리학의 의미, 공간 탐색 전략으로서 걷기, 심리지리학적 지도화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하고 걷기를 통한 도시 공간 탐색의 구체적 결과물로서 심리지도를 생성하는 것이다. 나아가 심리지리학적 공간 탐색 및 지도화의 지리교육적 함의 및 확장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황주의 관점의 심리지리학을 현재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창의적 도시 탐색이라는 심리지리학 정신을 지리교육에 투영하는 시도이다(Phillips, 2015). 이 논문은 우리나라 지리교육에 심리지리학을 소개하는 시론적 연구이며, 그것의 실증적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교육적 함의로까지 그 논의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심리지리학의 의미와 표류를 통한 도시 탐색

지리학과 심리학의 시각을 결합하려는 시도인 심리지리학은 1950-6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번성했다 최근 새롭게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분야이다(Chattopadhyay, 2013; Coverley, 2018). 심리지리학은 국제상황주의자였던 프랑스 철학자 Guy Debord(2006)가 중심이 되어 주창한 개념으로 지리적 환경이 개인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방식에 주목한다. 도시 공간이 개인의 의식과 자각에 미치는 감정적, 행동적 영향에 주목하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해석학적 접근인 것이다(Daniilidis, 2016).

심리지리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욕구와 소비를 끊임없이 조장하고 여가, 자유 시간, 창의성의 여지를 말살하는 사회라고 비판한다(Kitchens, 2009). 도시는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자동차 친화적인 환경은 개인의 몸이 능동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근대 도시의 화려한 경관과 웅장한 자태는 일반인들이 그것을 기획한 권

력자들의 의도대로 살게 만든다. 각 개인은 스펙터클<sup>1)</sup> 속에서 권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에 Debord를 필두로 한 심리지리학자들은 권력에 저항하고 권태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 기반의 혁신적 공간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심리지리학자들은 일상의 경험과 실행 속에서의 혁명 가능성에 주목하였으며 주관적 감정이 도시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또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심리지리학에 기반하여 도시를 탐색하는 연구자들은 도시를 미스터리한 장소로 생각하고, 일상의 흐름 속에 숨겨진 본질을 드러내고자 한다(Kent, 2013; Coverley, 2018). 그들은 사회적 공간과 정신적 공간의 관계, 도시성과 행동의 관계,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며, 궁극적으로 동시다발적 혁명 가능성에 주목하였다(Pinder, 1996). 저항적 도시 경험은 도시 기획자가 의도한 대로, 지도에 나타난 길을 따라 이동하며 도시 경험하기를 거부하며,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때로는 재미있는 행위를 통해 공간을 탐색하는 방식을 강조한다(Bassett, 2004; Wood, 2010; Phillips and Johns, 2012). “장난기 많지만 건설적인(playful-constructive)” 방식을 통해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려는 것이다(Sadler, 1999:77). Coverley(2018:13)가 제시한 심리지리학 초심자 가이드는 이러한 측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런던의 도시 지도를 꺼내라. 아무 곳이나 선택해서 그 위에 안경알을 놓고 가장자리를 따라 그려라. 이제 그 지도를 들고 밖으로 나가 최대한 그려진 원을 따라다녀라. 필름이나, 사진이나, 테이프나, 글이나 어떤 것이든 활용하여 도시를 거닐 때의 경험을 기록해라.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글자들에 주목하고, 낙서나 브랜드가 적혀 있는 쓰레기도 살펴보고, 대화도 엿들어 보아라. 우연히 발생하는 메타포에 관심을 가지고, 거리 분위기의 변화를 관찰하여라. 원을 다 돌았으며 기록을 멈추어라.

Richardson(2015:1) 역시 유사한 걷기의 전략을 제시하며 심리지리학의 의미와 그것에 기반한 공간 탐색에 관심을 가졌다.

동네 지도를 꺼내 바닥에 펼쳐라. 지도를 살펴보고, 지형을 상상한 후, 마음에 드는 경로를 선택해 지도 위에 그려라. 코트를 입고 가장 튼튼한 신발을 신어라. 집을 나선

후, 지도는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리고선 지도를 잊어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소에 가서 가장 먼저 오는 버스를 타라. 집에서부터 충분히 멀리 왔고 잘 알지 못하는 곳이라고 느낄 때쯤 버스에서 내려 걷기 시작해라.

이처럼 심리지리학자들은 특정한 목적의식 없이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를 표류(dérive)라 한다. 표류는 도시의 심리지리를 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이며(McLaughlin and Fry, 2001; Wood, 2010), 도시의 기능적 측면에 경도되는 물신주의(fetishisation)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법이다(Sadler, 1999). 표류에서는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한 이동이라는 동기를 버리고, 표류하는 지역과 거기서 만나는 대상들의 매력에 따라 움직인다. 표류의 관점에서 도시는 ‘심리지리학적 경사(psychogeographic relief)’를 지닌 곳이다(Debord, 1958). 그렇다고 해서 표류가 아무런 의미 없이 배회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표류하는 과정 중에 “일정한 공간 내에서 급작스러운 환경 혹은 분위기의 변화, 심리적 상태에 의한 도시의 분화, 배회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경로, 어떤 장소의 매력적인 혹은 불쾌한 특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한다(Debord, 2006:10). 표류는 친숙하게 보던 것을 새롭게 느끼게 하며, 도시의 숨은 역사와 사건들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Biesta and Cowell, 2012; Springgay and Truman, 2019; Kelly, 2020). 심리지리학자들은 표류를 통해 도시 공간이 새롭게 구성될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공간 구성을 위한 전략의 발판을 마련한다(이희상, 2013). 도시 계획자들이 기획한 공간에 따라 만들어진 길, 지도학자들이 그린 지도 위에 나타난 경로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창의적인 길을 만들고 새로운 공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Sadler, 1999; Trier, 2014).

## 2. 도시 탐색을 위한 걷기

본 연구에서는 도시 탐색을 위한 심리지리학 전략으로 걷기에 주목한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걷기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공간과 장소 이해를 위한 방법으로서 걷기의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Morris, 2004; Carpiano, 2009; Lorimer, 2011). 걷기는 공간을 지각하고 학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육체와 경관의 상호작용을 탐색할 수 있게 한다. 걷기는 공간, 장소, 환경 속에서 숨은 의미

를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며(Sinclair, 1997; Pinder, 2011), 도시를 온전히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김미영·전상인, 2014; Daniilidis, 2016).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과 같은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달은 공간 이동에 자유를 주었지만 이와 동시에 개인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순응하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주체적 개입, 경험, 해석을 강조하는 걷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걷기의 사회적,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이다혜, 2009; 백영주, 2017). 주체적 걷기는 도시 계획자의 의도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공간적 수행(spatial practice)이다(Cloke *et al.*, 2005).

걷기는 도시 인상학적 관점의 Benjamin, 국제상황주의에 기반한 Debord, 일상의 공간실천에 주목하는 de Certeau로 이어지는 일련의 계보를 형성한다(백영주, 2017). 구체적으로, Benjamin(1999)은 도시 인상학 관점에서 도시를 어슬렁거리며 통찰력을 얻는 산책자(flâneur)에 주목하였다(심혜련, 2008). 도시 산책자는 공간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곳에 침투해 갈 수 있는 주체로 걷기를 통해 도시를 능동적으로 이해한다. 도시 산책자는 탐정의 시선으로 도시의 핵심을 파악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는 일상의 경관을 꿰뚫어 보고 자본주의 도시의 권력에 저항하는 적극적 주체이다(이다혜, 2009).<sup>2)</sup> 국제상황주의에 바탕을 둔 심리지리학은 표류(dérive)로 개념화된 걷기를 통해 새롭고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도시 이해에 관심을 가진다(Phillips and Johns, 2012; Pierce and Lawhon, 2015). Debord(2006)는 도시 걷기를 의식적인 실험으로 격상시켰다. 심리지리학자들은 걷기를 방해하는 신호등, 도로와 같은 근대적 도시의 통제에 저항하고자 하였다(이다혜, 2009). 마지막으로, de Certeau(1984)는 걷기를 통해 지도가 일방적으로 구획해 놓은 도시 공간을 자유롭게 횡단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자신만의 공간을 창출하는 발화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걷기는 도시 계획의 기능주의와 억압에 저항하는 공간실천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걷기는 시스템의 패턴이 새겨져 있는 구조를 해체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백영주, 2017).

걷기는 도시를 체화적으로 이해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도시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총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Rodaway, 1994; 박철웅, 2014; Phillips,

2015). 걷기는 다양한 감각을 통해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으며 도시 공간을 체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감각의 체화적 경험에 기반한 걷기는 오감을 통해 도시를 이해하는 감각적 교육학(sensational pedagogy)의 구현이다(Springgay, 2011). 걷기는 도시와 만나는 몸의 경험이며, 이 과정에서 시각만으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각양각색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김미영·전상인, 2014). 따라서 일상적 도시 공간의 미묘한 분위기, 실제 사람들의 삶, 현실의 지리를 이해하기 위해 도시 공간을 걸어보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다. Middleton(2010)은 도시 걷기의 경험 사례를 제공하는데, 다음의 참여자 성찰문은 걷기가 도시를 민감하게 경험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걷기는 어떤 지역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지리심리는 거리마다 다르며 이것은 발로 직접 걸어볼 때에 만 느낄 수 있다. 나는 신비주의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도로나 지역의 분위기는 그곳의 지역 환경을 구성하는 수백 가지의 요소와 세부적인 것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가용이나 버스를 타고 공간을 지나갈 때, 그러한 분위기를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성이 줄어든다(Middleton, 2010:582).

Pierce and Lawhon(2015)은 걷기가 포함된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의 차이점이 분명하다며 걷기를 명시적으로 연구 방법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떤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맥락, 거주자들의 공간적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헤매며 돌아다니는 자기 의식적, 반성적 프로젝트를 탐색적 걷기로 정의하였다. 탐색적 걷기를 통해 사회적, 공간적 접점에 있는 무엇인가를 예기치 않게 발견할 수 있고, 일상생활의 공간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일반 대중이 주체가 되어 도시를 걷는 프로젝트인 제인의 도보(Jane's Walks)<sup>3)</sup>에 주목할 만하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노는 장소들을 관찰하고, 성찰해 보며, 공유하고, 질문하여 그곳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도시 걷기를 통해 이웃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숨겨진 측면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도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추가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걷기를 축제적

행위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도시를 이해하고 사람을 위한 도시 건설의 기반이 되는 자원을 제공한다. Pierce and Lawhon(2015)은 걷기를 지리적 탐구에서 활용하기 위해 “① 친밀하고 편안한 곳에서 시작하라 → ② 흐름, 경계, 연결의 지리에 주목하라 → ③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건너 반복적으로 수행하라 → ④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끝내라”와 같은 단계 전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3. 심리지리학적 지도화

심리지리학자들은 도시 공간을 탐색할 때 각각의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상태를 중시한다. 때문에 의식, 느낌, 분위기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각화, 지도화가 필요하다(Bassett, 2004; Chattopadhyay, 2013). 일반적인 지도는 추상적 코드와 관습을 활용해 “도시의 미로를 길들이고, 공간을 읽을 수 있고(legible), 알 수 있는 것(knowable)”으로 만들고자 한다(Pinder, 1996:407). 이 과정에서 도시의 소음, 혼란, 에너지, 끊임없는 움직임 등은 사라진다. 이에 Pinder는 심리지리학자들의 저항적 도시 이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탐색을 지도화하기 위해 정적이고 일률적인 지도화를 벗어나 주관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재현할 수 있는 “전복적 지도화(subverting cartography)”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파리의 지도를 절개하고 파편화하여 나타내고, 구역 간의 이동을 물리적 거리가 아닌 이동의 편리성, 심리적 거리에 따라 나타난 Guy Debord의 ‘벌거벗은 도시(The Naked City)<sup>4)</sup>’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실험적인 지도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일상생활공간에서 개인의 주관적 느낌, 경험, 감정 등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 해석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화하려는 시도는 인류학의 심층기술(thick description)에 비견되는 심층지도(deep map) 혹은 심층지도화(deep mapping)로 이해될 수 있다(Harris, 2015; Roberts, 2016; Earley-Spadoni, 2017).

Irwin *et al.*(2009)은 걷기를 통한 심리지리학적 지도화를 미학적 지도화(aesthetic cartography)라 개념화하고, 정태적 대상(object)로서의 지도가 아니라 창의적 과정(process)으로서의 지도화를 강조하였다. Irwin *et al.*의 연구에 참여한 이민자들은 지역사회를 걸으면서 예술 교육자에게 자신들의 일상적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 계획에 의해 미리 정의된 중심지가 아닌 각 개인에게 중요한 다양한 중심지가 발견되

고 설정될 수 있었다. 또한 도시를 걷는 시민들은 거리에 전시된 예술품을 보면서 그것에 자신만의 경험을 투영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공간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심리지리학적 수행을 보였다.

심리지리학적 지도화는 교육과 연계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Bassett(2004)의 파리 야외조사 수업에서 학생들은 심리지리학적 관점을 통해 공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학생들은 ‘벌거벗은 도시’를 참조하면서 도시에 대한 느낌, 혼란, 매력, 혐오 등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고, 텍스트, 시각적·공간적 몽타주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자신들만의 심리지도를 생성하였다. 이러한 심리지도화 활동은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성별에 따라 선택하는 경로, 장소에 대한 태도와 반응 등이 달라짐을 알게 되었고, 이는 젠더가 도시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어떻게 도시를 ‘읽을’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도시를 ‘구성해’ 나갈 것인가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비판적 기획이었다. Biesta and Cowell(2012)은 지역사회를 정태적인 실체가 아니라 다양성이 경쟁하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지역사회에 오래 거주한 연장자들과 새롭게 이주한 젊은이들에게 각각 지역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를 직접 걸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연장자들은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적 변화에 따른 지역의 경관까지도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새롭게 이주한 젊은 거주민들은 기능을 바탕으로 공간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Biesta and Cowell은 이러한 측면들을 반영한 심리지도를 생성하였는데, 이 지도는 공간적, 경험적, 시간적 측면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재현물이었다. 지역민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동일한 공간도 다양한 시각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인지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서 지역사회를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요컨대 새롭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도시 공간을 주제로 탐색하는 심리지리학적 걷기의 경험을 시각화하기 위해 전통적 접근과는 다른 방식의 지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공간 탐색과 경험, 그리고 이를 다양하게 지도화하는 활동은 의미 있는 지리교육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 III. 영도의 심리지리학과 지도화: 벌거벗은 영도(The Naked Yeongdo)

본 연구에서는 Debord의 ‘벌거벗은 도시’를 모티브로 하여 걷기를 통해 부산시 영도 지역을 탐색하고 ‘벌거벗은 영도(The Naked Yeongdo)’라는 공간적 재현물을 생성하였다(그림 1). 부산시 남쪽에 위치한 섬인 영도는 광복 후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수산업, 물류업, 조선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배영한·강동진, 2013). 영도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인 다나카 조선소, 그리고 각종 수리조선 관련 업체들이 들어서 있는 일명 깡깡이 마을(대평동 일대)을 걷기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곳은 특이한 수리조선 경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된 각종 예술 조형물, 작업장의 쇠소리, 바다 냄새 등 심리지리학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자는 발걸이 닿는 대로 이곳을 탐색적으로 걸으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느낌을 기록하여 심리지도를 완성하였다. 벌거벗은 영도는 다양한 감각을 통해 지각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지

도, 사진, 동영상 등으로 표현한 ‘공감각적 콜라주(collage)’이다. 이는 영도라는 도시 공간을 표류하며 그 과정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한 심리지리학적 맵핑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1에 본 연구에서 생성한 심리지도에 포함된 지점들과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연구자가 영도를 자유롭게, 탐색적으로 걷는 과정에서 주목했던 경관이나 소리, 냄새 등을 포함한다. 영도의 특징이나 정체성을 보여 주는 경관, 특이하거나 아름다운 조형물, 특별한 소리나 냄새 등이 발길을 끄는 주요한 요소로 작동했다. 즉, 영도의 심리지리학적 경사를 따라 표류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벌거벗은 영도’라는 재현물을 생성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심리지리학적 경험을 지도화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심리지리학적 공간 탐색 및 지도화는 임의적이고 놀이적인 요소가 포함된 도시 탐색을 통해 경관의 다양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다(Daniilidis, 2016; Pánek *et al.*, 2018; Pánek and Glass,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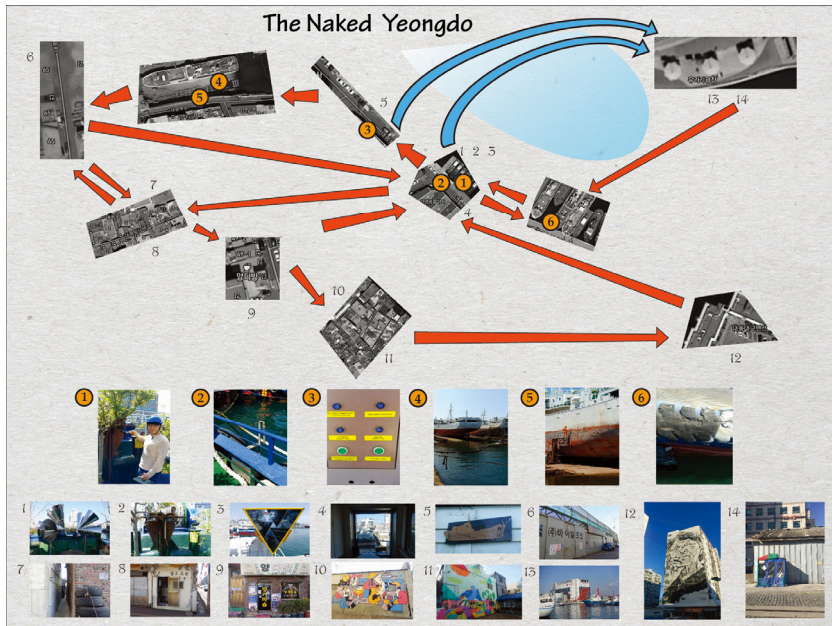


그림 1. 벌거벗은 영도: 영도의 심리지도

- \* 숫자는 각 지점과 관련된 사진(14개) 및 동영상(6개)을 나타냄.
- \*\* 동영상이 제시된 곳의 경우, 소리에만 집중하기 위해 사운드 파일로만 표현하는 버전도 가능함.
- \*\*\* 13, 14 지점으로 이어지는 푸른색 화살표는 걷기를 나타내는 붉은색 화살표와는 달리 바다 건너를 바라보는 양상을 표현한 것임.

표 1. '벌거벗은 영도'에 포함된 요소 및 내용

연번	지점	관련 내용 및 요소
사진	1	소리듣기 조형물 도시의 다양한 소리를 모아서 들을 수 있는 예술품. 특이한 갈매기 모양이 방문자들의 관심을 끈다.
	2	깡깡이 체험 조형물 깡깡이 작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조형물. 실제 깡깡이 망치를 두드리 볼 수 있다는 설명문이 부착되어 있고, 깡깡이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다.
	3	깡깡이스코프 도시의 모습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장치. 일상적인 시각이 아닌 특이한 시각으로 경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조선소 카페 옛 조선소 건물을 그대로 활용한 카페. 조선소라는 이미지를 활용한 대표적 재생 카페로 창문을 통해 영도의 모습을 예술작품처럼 살펴볼 수 있다.
	5	거리박물관 영도의 조선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는 거리. 사진은 배에 현을 달아 약기처럼 표현한 작품이다.
	6	바이칼조선소 러시아 이름이 이국적인 조선소. 여러 조선소가 있지만 러시아 이름이라 관심을 끌었고, 현재도 작업하는 모습은 공간적 특성을 드러낸다. 이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거리에서 실제 러시아인을 볼 수 있다.
	7	좁은 골목 영도의 주거 환경을 보여 주는 좁은 골목. 가난한 피난민들이 정착한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공간이다.
	8	넓은 건물 영도조선이라는 이름이 주목을 끄는 넓은 건물. 시대의 흐름을 비껴간 듯한 모습과 영도라는 구체적 이름이 특이한 경관적 요소로 작동한다.
	9	○다방 드라마가 촬영되고 언론에 소개되어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다방. 복고 열풍에 힘입어 쌍화차를 맛보러 오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10	영도사람 벽화 영도의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 준다는 설명문이 있는 벽화. 선원, 다방 종업원 등이 그려져 있어 영도의 지역적 성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11	넓은 공간 벽화 도시재생사업으로 다른 곳에 비해 공간이 넓고 벽화가 꾸며져 있는 곳. 좁은 골목이 주를 이루는 다른 곳과 비교되는 공간이다.
	12	우리들의 어머니 근대화 시대 우리 어머니의 모습(특히, 여기서는 깡깡이 아지매)을 표현한 아파트 벽면의 그림. 아파트 벽면 전체를 캔버스로 활용한 거대한 그림으로 예술적, 상징적 의미가 깃든 영도의 랜드마크이다.
	13	영도다리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영도다리. 매일 두 시에 도개하는 이벤트가 벌어지며 깡깡이 마을에서 바다 건너 바라볼 수 있다.
	14	영도다리 밑 점집 영도다리 밑에 점집들이 번성했으나 모두 없어지고 텅그러니 하나만 남아 있는 곳. 도시재생의 물결 속에서 점바치 아지매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동영상	1	깡깡이 체험 실제 깡깡이 망치를 두드리며 이곳의 특징적인 소리를 경험하는 모습. 직접 깡깡이 망치를 만지고, 두드리며 소리를 듣는 경험이 인상적이다.
	2	체험선박 소리 배가 움직일 때 나는 소리, 해녀의 물질 소리를 재현한 조형물. 영도의 특징적인 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
	3	영도의 소리 영도와 관련된 다양한 소리를 녹음해 둔 곳. 최백호의 '1950 대평동' 노래를 틀어 녹화했다.
	4	다나카 조선소 다나카 조선소에서 작업하는 모습. 조선소의 쇠소리 등 다양한 소리가 지역의 특성을 잘 드러내 준다. 이 주변에는 각종 수리조선소가 밀집되어 있어 이곳의 독특한 냄새도 인상적이다.
	5	그라인딩 작업 배에 그라인딩 작업하는 경관. 예전 깡깡이 작업이 이런 방식으로 많이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작업 역시 지역의 특이한 경관으로 관심을 끈다.
	6	바다소리 및 냄새 해안에 위치한 영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바다의 파도소리. 이 소리를 들으며 머물러 있으면 바다 냄새 또한 느낄 수 있다.

#### IV. 논의: 심리지리학 및 지도화의 지리교육적 함의

##### 1. 걷기를 통해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도시 탐색하기

이 연구에서는 걷기를 통해 도시 공간을 주체적,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전략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 계획자, 지도화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탐색자가 스스로 도시를 해체하고, 자신만의 공간 이해를 구축하는 해방적 도시 이해가 가능하다. 자신의 발로 직접 땅과 접촉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 걸으며 다양한 감각을 통해 이해하는 공간은 자동차 속에서 정해진 길을 따라 경험하는 공간과는 다르다(Middleton, 2010). 걷기는 체화적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관점과 감각으로 도시를 인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 연구는 걷기가 공간을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도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과 실천은 Phillips(2015)가 강조한, 심리지리학의 정신을 반영하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도시를 탐색하고 표현하는 활동이었다.

Smith(2008)는 예술가의 창의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세상을 새롭게 탐색하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항상 돌아보기, 모든 것이 다 흥미롭다고 생각하기,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주시하기, 자주 경로 이탈하기, 더 가까이 보기, 오래 관찰하기, 패턴이나 공통점 찾기, 발견한 것 기록하기, 모든 감각을 활용해 세상 경험하기 등은 걷기를 통해 도시를 탐색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 도시 공간을 자유롭게 걸어가며 공간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파헤쳐가는 탐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실행은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도시 공간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방법으로, 정답을 찾기 위해, 부여된 목표 지점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시각으로, 나만의 목표 지점을 설정하거나 목표하는 지점 없이, 도시를 이해하여 나가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탐색적 걷기, 표류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도 개발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는 전략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예컨대 Dérive app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으

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어플이 제시하는 활동은 “동쪽으로 가세요”, “횡단보도를 건너세요”와 같은 단순한 것에서부터 “감시 카메라를 찾아 그 앞에서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지어보세요”, “주차된 스포츠카 혹은 멋진 차를 찾아 앞바퀴가 놓인 방향으로 걸어가세요”, “흥미로운 소리를 찾고, 사진을 찍으세요”, “도로가 부서진 곳을 찾아 기록하세요”와 같은 창의적인 것까지 여러 가지 지시들을 포함한다. 그림 2는 Dérive app에 활동이 제시된 화면을 예시로 보여준다. Dérive app은 사용자가 어떤 활동을 어디에서 수행했는지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고 지도화까지 해 주어 지리교육 활동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Dérive app과 같은 도구의 활용을 통해 Coverley(2018)가 제시한 좀 더 놀이적이고, 유쾌하며, 임의적인 방식의 도시 공간 경험이 가능하다. 이처럼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표류를 통해 공간을 경험하는 활동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테크놀로지 활용 기술과 창의적 공간 이해라는 목표를 동시에 성취하는 교육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공간 경험하기

본 연구에서는 도시 공간을 색다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는 경험에 주목하였다. 우리의 공간 이해는 시각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공간에는 다양한 감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온전하고 주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Warf, 2015).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인지하는 정보는 공간 이해에 새로운 관점과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눈으로만 이해하는 도시가 아니라 오감을 통해 체화적으로 인지하는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미영·전상인, 2014). 이런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영도의 특징적인 짹짹 소리, 조선소의 쇿소리와 그라인딩 작업 소리, 바닷소리 등 다양한 소리 경관적 요소에 주목하였다. 또한 바다에 위치한 영도 특성상 어느 곳에서나 느낄 수 있는 바다 냄새, 각종 조선 관련 업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곳만의 특이한 냄새에도 관심을 가졌다. 영도에서 독특하게 볼 수 있는 조형물이나 쇿덩어리 등을 촉각적으로 느껴보는 경험도 의미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생성한 ‘벌거벗은 영도’는 이러한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포함한 콜라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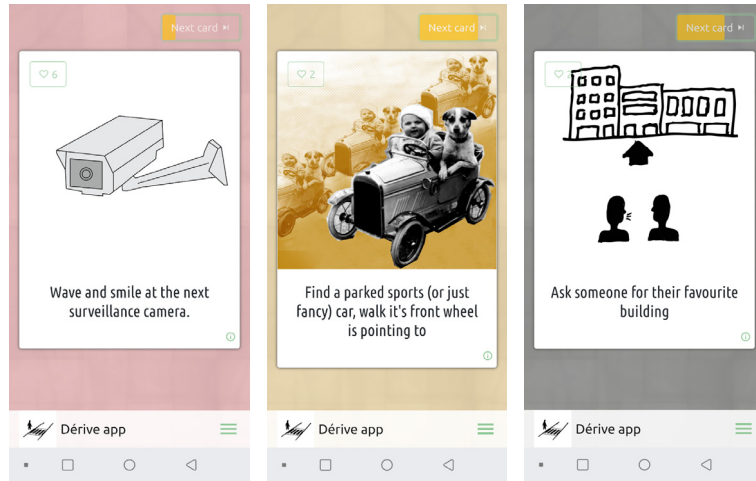


그림 2. Dérive app의 활동 화면 예시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공간을 경험해 보게 하는 활동은 의미 있는 교육적 기획이다(Morris, 2020). Vannini *et al.*(2013)은 인간의 감각을 활용하여 자신, 타인,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효과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감각 지능(sensory intelligence)”이라 정의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들은 지리교육적 맥락에서 다양한 감각 경험을 통해 공간을 이해하는 전략에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Phillips(2015)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통찰력을 제공한다. 예컨대 어떤 장소에 한 시간 동안 앉아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에만 주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눈을 가리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 냄새만으로 공간을 탐색하는 활동 등은 기존에 주목하지 않던 감각을 통해 공간을 경험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Phillips는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실제 도시를 탐색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지하철 소리를 통해 도시를 이해한 경험, 의도적으로 길을 잃고 주목하지 않았던 공간적 요소를 탐색한 경험 등을 통해 창의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공간을 탐색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인지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감각 경험에 주목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어떤 감각을 많이 활용하여 공간을 경험하는지, 다른 감각으로 경험한 도시는 어떤 모습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공간 이해를 위한 생산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도시 공간을 다양한 관점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양한 주체가 동일한 공간을 다르게 인지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포함한다. 예를 들어, 똑같은 곳을 동시에 걸어가

라도 성별에 따라 주목하는 경관과 그곳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학교 주변의 인지지도를 그리도록 하면 남학생들은 주로 게임방을 그리고 여학생들은 화장품 가게에 주목한다. 동일한 공간을 경험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주목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Bassett(2004)의 연구는 심리지리학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예컨대 여러 학생이 한 조를 이루어 동일한 공간을 배회하던 중, 한 남학생은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거리의 어떤 물건이나 분위기, 행인 등이 같은 조의 다른 여학생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였다. 이런 경험을 통해 몇몇 학생은 시공간 리듬의 젠더화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어떤 학생은 여성에게 더욱 위협적일 수 있는 시각적 경관 및 단서들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나이, 신체 상태, 사회경제적 배경, 민족적 배경과 같은 개인적 요소에 따라라도 동일한 공간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Dodman(2003)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주목하는 환경의 종류와 요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Young and Barrett(2001)은 거리에서 부랑하는 아이들이 느끼는 도시 공간의 모습이 다른 배경과 나이를 가진 아이들의 것과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공간을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느끼고 경험한다는 사실을 학습하는 것은 균형 잡힌 공간 이해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활동을 여러 주체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면 그들만의 독특한 ‘벌거벗은 영도’가 생성될 것이다. 다양한 학생들로 하여금 동일한 지역을 심리지리학적으로

탐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활동으로 본 프로젝트를 확장하면서 각 주체들이 주목하는 공간 요소를 비교 및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은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 3. 심리지리학 관점에서의 지도화 활동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영도를 사례지역으로 탐색적 걷기를 수행하고, 이를 ‘벌거벗은 영도’라는 공간적 재현물로 표현하였다. 이 재현물은 도시 탐색자로서 경험한 영도를 독특하게 시각화하는 전략이었다. 이처럼 도시를 심리지리학적으로 탐색하면서 수집한 데이터를 지도화하는 활동은 지리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도시답사, 공간 이해, 지도화 등 지리교육에서 주목하는 요소들을 폭넓게 아우르는 심리지리 지도화 활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 관련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는데, Pánek and Glass(2018)는 학생들로 하여금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Lawrenceville의 다양한 구역을 배회하면서 자유롭게 탐색하고, 여러 지점에서 경험한 장소감을 지도화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장소감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역동적으로 지도화함으로써 지역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심리지리학적 전략을 통해 도시 공간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지도화하였으며, 이는 지역변화, 장소감과 같은 중요한 지리적 개념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었다. Bridger(2014)는 Manchester를 의도적으로 헤매면서 탐색하는 심리지리학 걷기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업화된 도시경관, 감시와 통제를 수행하는 공간 요소 등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험을 자신만의 심리지도로 표현하였는데, Bridger가 수행한 일련의 활동들은 학생들이 익숙한 일상생활공간을 새롭게 탐색하고 지도화하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심리지리학적 지도화는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기획될 수 있다.

심리지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벌거벗은 영도’를 제작하였다. 파워포인트를 활용할 경우,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에 익숙하고, 글이나 그림, 동영상 등을 직관적으로 삽입할 수 있어 테크놀로지 자

체의 학습보다 지도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이외에도 여러 형태로 심리지리 맵핑이 진행될 수 있다. 예컨대 ESRI 스토리맵은 상호작용적으로 디지털 지도를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Strachan and Mitchell, 2014; Egiebor and Foster, 2019). 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한 지점 및 경로, 그리고 각 장소에서의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여러 형태의 스토리맵을 구현할 수 있다.<sup>5)</sup> 구글어스나 구글맵스 또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렵지 않게 매쉬업하여 지도화 할 수 있게 해 주는 도구이다(김민성, 2017; Kim *et al.*, 2017). Pánek and Glass(2018)는 Collector for ArcGIS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기록하여 지도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의 지도화 또한 가능하다. 학생들이 찍은 사진, 그린 그림 등을 커다란 종이에 오려 붙이고 직접 글을 쓰는 로우테크 방식으로 지도화하는 활동은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로우테크 전략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교실에 도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도화 활동은 지리교육에 폭넓게 도입되어 활용되는 전략이다. 여기에 심리지리학적 관점을 더하는 것은 공간을 탐색하는 시각을 넓히고,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지리하기(doing geography)’를 촉진할 수 있다. 활동의 목적과 맥락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공간 해석과 표현의 주체가 되는 심리지리학적 지도화 활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심리지리학의 의미, 공간 탐색 전략으로서 걷기, 심리지리학적 지도화에 대해 논하고 걷기를 통한 도시 공간 탐색의 결과물로 ‘벌거벗은 영도’라는 공간적 재현물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심리지리학과 지도화가 지리교육적 관점에서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리학적 공간에 심리학적 관점을 결합하는 시도인 심리지리학은 국제상황주의자였던 프랑수아 철학자 Debord(2006)가 중심이 되어 주창한 개념으로 지리적 환경이 개인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방식에 주목한다. 심리지리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

고, 도시 계획에 의해 일반적으로 주어진 공간 이해와 활용에 저항한다. 이들은 일상의 경험과 실행 속에서 혁명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주관적 감정이 도시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심리지리학에 기반하여 도시를 탐색하는 연구자들은 도시를 미스터리한 장소로 생각하고, 표류를 통해 일상의 흐름 속에 숨겨진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다. 걷기는 표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천 전략이다. 걷기를 통해 육체와 경관이 상호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공간을 능동적이고 체화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걷기는 공간에 대한 개인의 주제적 개입, 경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걷기를 통해 공간, 장소, 지역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지리학, 걷기, 시각화 등을 통합한 관점에서 ‘벌거벗은 영도’라는 재현물을 생성하였다. ‘벌거벗은 영도’는 연구자가 발길이 가는 대로 탐색적으로 도시를 걸으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느낌을 기록하여 완성한 지도로 다양한 감각을 통해 지각한 공간 정보를 융합적으로 표현한 공감각적 콜라주(collage)이다. 이는 영도라는 도시 공간을 표류하며 그 과정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물이었다.

심리지리학은 교육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걷기를 통해 주제적이고 창의적으로 도시 탐색하기,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공간 경험하기, 심리지리 지도화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생들은 표준화된 방식이 아닌 다양하고 유회적인 방법으로 도시 공간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새롭고, 확장된 시각으로 공간을 바라볼 수 있다. 이 과정에 다양한 감각 및 관점들이 개입하여 동일한 공간도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도시 답사, 공간 이해, 지도화 등 지리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요소들을 폭넓게 아우르는 심리지리 지도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는 심리지리학을 소개하는 시론적 시도였다. 또한 심리지리학 적용 프로젝트로 ‘벌거벗은 영도’를 생성하여 도시 공간 이해에 심리지리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실증적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나아가 심리지리학 및 지도화 활동의 교육적 함의로까지 그 논의를 확장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다양하고, 혁신적이며, 때로는 놀

이적인 전략을 통해 공간을 탐색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본 연구자는 수업 활동의 일환으로 심리지리학 맵핑을 수행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창의적 시각에서의 공간 탐색, Dérive app과 같은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활용, 다각적 관점에서의 장소 이해와 같은 학습 요소를 포함한다. 다양한 맥락에서 이러한 수업 활동을 확장하고 관련 연구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노력을 통해 심리지리학의 지리교육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생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註

- 1) 스펙터클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Ross, 2013:22). 실제 경험(lived experience)보다 이미지의 우세, 상품의 우월한 지위, 추상적인 교환 가치의 옹호, 소외, 관중에 의한 수동적 관찰, 삶과 경험을 희생한 사색, 특정한 경계와 이데올로기(자본주의) 강조, 소외/분리/파편화/공동체의 결핍, 역사의 부정.
- 2) 보행자의 위치에서는 도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듯이, 구조는 인지되지 않을 뿐더러 바꿀 수도 없다. 대신 나와 밀접해있는 것들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나의 포지션을 재설정함으로써 현실의 변화는 상대적 관점에서 가능해진다. 이미 존재하는 구조를 부정하기보다 생활 범위 내에서 협상안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다(백영주, 2017:88).
- 3) <https://janeswalk.org>
- 4) *The Naked City, 1957*, Illustration de l'hypothèse des plaques tournantes en psychogéographique.
- 5) 스토리맵 활용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Strachan and Mitchell (2014)은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이 ESRI 스토리맵을 사용자 친화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매력적인 도구로 평가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나아가 교과에 적합한 교육학적 형태로 스토리맵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Egiebor and Foster(2019)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토리맵의 교육적 효과를 조사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스토리맵이 탐구 수행, 정보 시각화, 상호작용적 지도화 등에 효과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참고문헌

- 김미영·전상인 2014, “오감(五感) 도시’를 위한 연구방법론으로 걷기” 국토계획, 49(2), 5-21.
- 김민성 2017, “공간적 시민성의 개념화와 적용: 장애인 시각에서 대구 근대화 골목 바라보기” 한국지리학회지, 6(3), 339-354.
- 박철웅 2014, “도시답사에서 다감각적 경험을 통한 질적 접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2(2), 65-79.
- 배영한·강동진 2013, “부산 영도의 도시경관 변천과정 및 특성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4(6), 125-141.
- 백영주 2017, “걷기의 의미 양상과 예술적 실천: 미셸 드 세르토의 ‘공간 실천과 도시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46, 81-108.
- 심혜련 2008, “도시 공간과 흔적 그리고 산책자” 시대와 철학, 19(3), 103-135.
- 이다혜 2009, “발터 벤야민의 산보객 Flaneur 개념 분석: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1, 105-128.
- 이희상 2013, “도시 속 걷기와 도시 공간의 박물관화: 수행적 공간으로서 대구 근대골목투어” 대한지리학회지, 48(5), 728-749.
- Albright, D., 2003, Tales of the city: Applying situationist social practice to the analysis of the urban drama, *Criticism*, 45(1), 89-108.
- Benjamin, W., 1999, *The Arcades Projec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assett, K., 2004, Walking as an aesthetic practice and a critical tool: Some psychogeographic experiments,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28(3), 397-410.
- Biesta, G. and Cowell, G., 2012, How is community done? Understanding civic learning through psychogeographic mapp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31(1), 47-61.
- Bond, M., 2020, *Wayfinding: The Art and Science of How We Find and Lose Our Way*, London: Picador(홍경탁 역 2020, 「길 잃은 사피엔스를 위한 뇌과학: 인간은 어떻게 미지의 세상을 탐색하고 방랑하는가」, 서울: 어크로스).
- Bridger, A.J., 2014, Visualising Manchester: Exploring new ways to study urban environments with reference to situationist theory, the dérive, and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11(1), 78-97.
- Carpiano, R.M., 2009, Come take a walk with me: The “Go-Along” interview as a novel method for studying the implications of place for health and well-being, *Health & Place*, 15(1), 263-272.
- Chattopadhyay, B., 2013, Sonic drifting: Sound, city and psychogeography, *SoundEffects-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Sound and Sound Experience*, 3(3), 138-152.
- Cloke, P., Crang, P., and Goodwin, M., 2005, *Introducing Human Geographies*, 2nd ed., London: Hodder Arnold.
- Coverley, M., 2018, *Psychogeography*, 3rd ed., Harpenden, UK: Oldcastle Books.
- Daniilidis, A., 2016, Urban drifting: An approach to city comprehension and mapping, *Sociology Study*, 6(7), 417-435.
- de Certeau, M., 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bord, G., 1958, Theory of the dérive, *Internationale Situationniste*, 2, <http://bopsecrets.org/SI/2.derive.htm>.
- Debord, G., 2006, Introduction to a critique of urban geography, in Knabb, K., ed., *Situationist International Anthology*, revised and expanded ed., Berkeley, CA: Bureau of Public Secrets, 5-8.
- Dodman, D.R., 2003, Shooting in the city: An auto-photographic exploration of the urban environment in Kingston, Jamaica, *Area*, 35(3), 293-304.
- Earley-Spadoni, T., 2017, Spatial history, deep mapping and digital storytelling: Archaeology’s future imagined through an engagement with the digital humanities,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84, 95-102.
- Egiebor, E.E. and Foster, E.J., 2019, Students’ perceptions of their engagement using GIS-Story maps, *Journal of Geography*, 118(2), 51-65.
- Ellard, C., 2015, *Places of the Heart: The Psychogeography of Everyday Life*, New York: Bellevue Literary Press.
- Gros, F., 2009, *Marcher, Une Philosophie*, Paris: Carnets Nord(이재형 역 2014,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

- 서울: 책세상).
- Harris, T.M., 2015, Deep geography-deep mapping: Spatial storytelling and a sense of place, in Bodenhamer, D.J., Corrigan, J., and Harris, T.M., eds., *Deep Maps and Spatial Narratives*,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8-53.
- Irwin, R.L., Bickel, B., Triggs, V., Springgay, S., Beer, R., Grauer, K., Xiong, G., and Sameshima, P., 2009, The city of Richgate: A/r/tographic cartography as public pedagogy, *International Journal of Art & Design Education*, 28(1), 61-70.
- Kim, M., Cho, D., Lee, S., and Shin, J., 2017, Development and applicability of a web-based time-geographic visualisation tool, *Geography*, 102(2), 71-78.
- Kelly, F., 2020, 'Hurry up please, it's time!' A psycho-geography of a decommissioned university campus,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25(6), 722-735.
- Kent, J.C., 2013, Walker Evans's psychogeographic mapping of Havana, 1933, *History of Photography*, 37(3), 326-340.
- Kitchens, J., 2009, Situated pedagogy and the situationist international: Countering a pedagogy of placelessness, *Educational Studies*, 45(3), 240-261.
- Lorimer, H., 2011, Walking: New forms and spaces for studies of pedestrianism, in Cresswell, T. and Merriman, P., eds., *Geographies of Mobilities: Practices, Spaces, Subjects*, Burlington, VT: Ashgate Publishing, 19-33.
- McLaughlin, S. and Fry, A., 2001, ON FRAMING: The situationist strategies of detournement and derive, *Architectural Theory Review*, 6(2), 56-64.
- Middleton, J., 2010, Sense and the city: Exploring the embodied geographies of urban walking, *Social & Cultural Geography*, 11(6), 575-596.
- Morris, B., 2004,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walking in the city', *Cultural Studies*, 18(5), 675-697.
- Morris, N.J., 2020, Teaching sensory geographies in practice: Transforming students' awareness and understanding through playful experimentation,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44(4), 550-568.
- Panek, J., Gekker, A., Hind, S., Wendler, J., Perkins, C., and Lammes, S., 2018, Encountering place: Mapping and location-based games in interdisciplinary education, *The Cartographic Journal*, 55(3), 285-297.
- Panek, J. and Glass, M., 2018, Gaining a mobile sense of place with collector for ArcGIS,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42(4), 603-616.
- Phillips, R., 2015, Playful and multi-sensory fieldwork: Seeing, hearing and touching New York,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9(4), 617-629.
- Phillips, R. and Johns, J., 2012, *Fieldwork for Human Geography*, London: Sage.
- Pinder, D., 1996, Subverting cartography: The situationists and maps of the city, *Environment and Planning A*, 28(3), 405-427.
- Pinder, D., 2011, Errant paths: The poetics and politics of walking,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9(4), 672-692.
- Pierce, J. and Lawhon, M., 2015, Walking as method: Toward methodological forthrightness and comparability in urban geographical research, *The Professional Geographer*, 67(4), 655-662.
- Pyry, N., 2019, From psychogeography to hanging-out-knowing: Situationist derive in nonrepresentational urban research, *Area*, 51(2), 315-323.
- Richardson, T., 2015, *Walking Inside Out: Contemporary British Psychogeography*, London: Rowman & Littlefield.
- Roberts, L., 2016, Deep mapping and spatial anthropology, *Humanities*, 5(1), 5.
- Rodaway, P., 1994, *Sensuous Geographies: Body, Sense and Place*, London: Routledge.
- Ross, E.W., 2013, Spectacle, critical pedagogy and critical social studies education, in Matarranz, J., Fernandez, A., and Garces, .A., eds., *Medios de Comunicacion y Pensamiento Critico: Nuevas Formas de Interaccion Social*, Madrid, Spain: Universidal de Alcala, 19-43.
- Sadler, S., 1999, *The Situationist City*, London: MIT Press.
- Sinclair, I., 1997, *Lights Out for the Territory*, London: Granta Books.
- Smith, K., 2008, *How to Be an Explorer of the World:*

- Portable Life Museum*, New York: Penguin.
- Springgay, S., 2011, "The Chinatown Foray" as sensational pedagogy, *Curriculum Inquiry*, 41(5), 636-656.
- Springgay, S. and Truman, S.E., 2019, Counterfuturisms and speculative temporalities: Walking research-creation in school,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32(6), 547-559.
- Strachan, C. and Mitchell, J., 2014, Teachers' perceptions of Esri Story Maps as effective teaching tools, *Review of International Geographical Education Online*, 4(3), 195-220.
- Trier, J., 2014, The introduction to detournement as pedagogical praxis, in Trier, J., ed., *Detournement as Pedagogical Praxis*, Rotterdam, The Netherlands: Sense Publishers, 1-37.
- Vannini, P., Waskul, D., and Gottschalk, S., 2013, *The Senses in Self, Society, and Culture: A Sociology of the Senses*, Hoboken, NJ: Routledge.
- Warf, B., 2015, Deep mapping and neogeography, in Bodenhamer, D.J., Corrigan, J., and Harris, T.M., eds., *Deep Maps and Spatial Narratives*,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34-149.
- Weiner, E., 2020, *The Socrates Express: In Search of Life Lessons from Dead Philosophers*, New York: Avid Reader Press(김하현 역, 2021,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철학이 우리 인생에 스며드는 순간, 서울: 어크로스).
- Wood, D., 2010, Lynch Debord: About two psycho-geographies, *Cartographica: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Geographic Information and Geovisualization*, 45(3), 185-199.
- Young, L. and Barrett, H., 2001, Adapting visual methods: Action research with Kampala street children, *Area*, 33(2), 141-152.
- 교신 : 김민성,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geomskim@snu.ac.kr)
- Correspondence : Minsung Kim,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geomskim@snu.ac.kr)
- 투고접수일: 2022년 2월 9일  
심사완료일: 2022년 2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10일